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태영 및 채권단간 추가적 노력 촉구

-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시장 안정 및
수분양자·협력업체 영향 최소화에 만전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 1. 8.(월) 07:30,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경제수석 박춘섭, 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 ①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납입, ②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 ③블루원 지분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④평택싸이로 담보제공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태영 측이 기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시장 안정 및 건설업 지원, 수분양자·협력업체 영향 최소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는 등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수분양자·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 해소하고, 사업장별 공사 현황, 자금 조달 상황 등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일일점검 체계도 가동키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hskim5495@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20)
		담당자	사무관 김기훈 (kkmarine@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최영주 (02-759-4777)
		담당자	과 장 류창훈 (chryu@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정훈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최석원 (eco1227@fss.or.kr)